

도서관 이용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순영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나. 「도서관 정보검색」강의 내용 |
| II. 도서관 이용교육이란? | 다. 「도서관 정보검색」실습 내용 |
| 1. 도서관 이용교육의 필요성 | 라. 수강 소감에 대한 검토 |
| 2. 도서관 이용교육의 개념 및 유형 | IV. 문제점 및 발전 방향 |
| III.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용교육 현황 | 1.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
| 1.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 2.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
| 2.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 3. 「도서관 정보검색」 |
| 3. 「도서관 정보검색」 | V. 맺는 말 |
| 가. 「도서관 정보검색」과목 개요 | 참고문헌 |

I. 들어가는 말

최근,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대학 도서관계에 있어 이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리하여, 많은 대학 도서관에서는 종래의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정보환경에 대응한 보다 다양한 이용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실제 강좌 개설로서의 결실을 맺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그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꾸준히 추진해 온 도서관 이용교육의 정규과목 개설 노력 또한 결실을 보아, 드

디어 1996년 2학기를 기해 학부생 교양과목으로서 「도서관 정보검색」과목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8년 3월에는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강좌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이용교육 프로그램은 좀더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이용교육으로서의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그리고 「도서관 정보검색」의 전반적 내용을 개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로부터, 이용교육 운영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對內外 도서관 이용교육 관계자에

게 어느 정도 참고할만한 사례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II. 도서관 이용교육이란?

1. 도서관 이용교육의 필요성

우선, 도서관의 이용교육이란 왜 필요할까 본래 도서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학 도서관은 대학 사회의 모든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흔히 대학의 심장부라 일컬어지고 있거니와, 때문에 대학 도서관은 오늘날까지 인류가 축적해 온 모든 지식기록의 집합체이자 학습자료의 보고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當該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도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른바, 정보전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대학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주변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바, 이는 곧 주지하는 대로, 매체의 다양화 및 정보의 양적 팽창, 학문의 급속한 세분화 또는 다양화, 그리고 결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정보기술의 발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諸 요인으로 인해, 대학 도서관은 자관이 소장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가 극도로 확대됨과 동시에, 반대로 그로 인해 자관의 소장 자료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의 범위는 급격히 축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지적했던 정보환경의 변화는,

도서관의 이용자에게도 똑같은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환언하면, 정보 및 정보원의 폭발적 증가는 그만큼 도서관 이용자에게도 보다 더 효율적인 정보검색과 아울러 자료입수 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보다 빈번하게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원하는 자료를 입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결국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도서관 및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대학 도서관계에서는 일찍이 1970년 대부터 본격적인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2. 도서관 이용교육의 개념 및 유형

도서관 이용교육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도서관 서비스, 시설, 조직, 자료 및 자료검색 방법에 대하여 이용자를 교육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지칭하는 말」로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교육의 형태는, 단순한 이용자 안내로부터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정규 과목의 수업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히 최근 수 년간 대학 도서관계에서 정착되고 있는 각종 정보검색 관련 강좌 또한 이용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즉, 근래 각 대학도서관에서 상설 또는 특별 강좌로서 개설하고 있는

이른바, 각종 데이터베이스 검색법 및 자관 검색시스템 이용법, 또는 인터넷 정보검색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술 활용 관련 강좌가 그것으로, 최근의 도서관 이용교육의 주요한 테마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용교육에 대한 명칭으로는 미국의 경우 Library orientation, Library instruction 및 Bibliographic instruction (BI) 등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거니와, 특히 서지 교육으로서의 Bibliographic instruction은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독립된 과목으로서의 도서관 이용교육에 대한 명칭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리하여, Bibliographic instruction이란 즉, 도서관의 자료조직 방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비롯, 참고 자료의 이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문헌의 구조와 함께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정보에의 접근 기술을 향상시켜 자율적인 학문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대학 도서관계의 경우, 근래 이러한 이용교육은 연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 수집, 평가, 선택하여 개인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활용 능력을 교육시키는 이른바, 정보관리 교육으로서의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으로 변천하고 있다. 따라서, Library orientation으로부터 Bibliographic instruction, 그리고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으로의 변천 과정이야말로 바로 오늘날의 정보환경의 변화에 기인

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같은 발전적 이행을 향한 대학 도서관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Ⅲ.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용 교육 현황

1.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은 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첫 단계로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각 부서의 위치를 비롯, 소장 자료 및 도서관의 제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은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거니와, 당관에서도 매년 학기초에 각 단과 대학별로 발송하는 공문을 통하여 일정을 공지한 후, 이에 참가 신청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집단 교육과 개별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前者인 집단 교육의 경우는 1일 3회로 나누어, 매회 약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도서관 자체 제작의 홍보 비디오 상영 및 질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後者인 개별 교육은 도서관 이용에 대한 개별적 문의에 대해 도서관내 Information Desk에서 안내 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교육과 함께 참가자들에게는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 배부를 통하여, 신입생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증진을 꾀하고 있다.

2.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최근의 각종 전자매체의 급증과 함께, 당관이 구독하고 있는 CD-ROM 및 Web 데이터베이스의 종수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당관에서는 1998년 3월부터 교내 교수,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매월 2-3회의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바, 교육은 전자정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기 교육은 수강자의 전공 혹은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인문사회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담당자 E-mail에 의한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교육 장소로는 PC 40대, 좌석수 40석 규모의 도서관 세미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학과의 요청에 의한 학과 특강이나, 방문 교육, 그리고 개별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열어 놓음으로써, 수강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당초 2시간으로 편성, 운영하여 오던 것을, 2000년부터는 1시간 연장을 하여 현재는 3시간 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시간은 대개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에 의한 DB 설명 (약 2시간) 및 DB 검색 실습 (약 1시간) 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관 및 타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 및 입수방법 (국내 상호대차 서비스 소개)
- 2) FirstSearch ILL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및 입수방법 (국의 상호대차 서비스 소개)

3) BLDS, UMI, UnCover사 등의 DDS 서비스를 통한 자료 검색 및 입수방법

4) 당관 구독 CD-ROM 자료 및 Web DB 전반에 대한 소개

5) 주요 CD-ROM 자료 및 Web DB의 검색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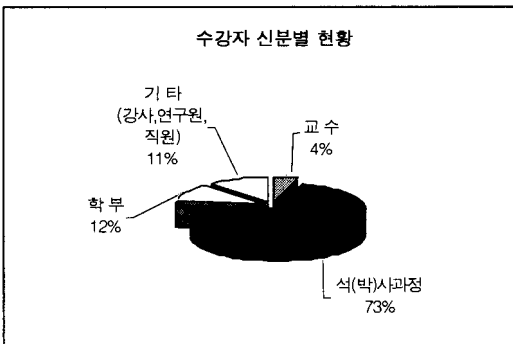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교육 내용은 주로 당관이 구독중인 CD-ROM 및 Web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법과 함께 해외 DDS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FirstSearch에서 연계되고 있는 국외 ILL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이용자의 보다 효율적인 학술정보 검색 및 자료 입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교육 자료와 관련해서는, 강의는 주로 당관 구독 Web DB에 대한 개요 설명으로 구성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출력한 유인물 자료를 수강자에게 배부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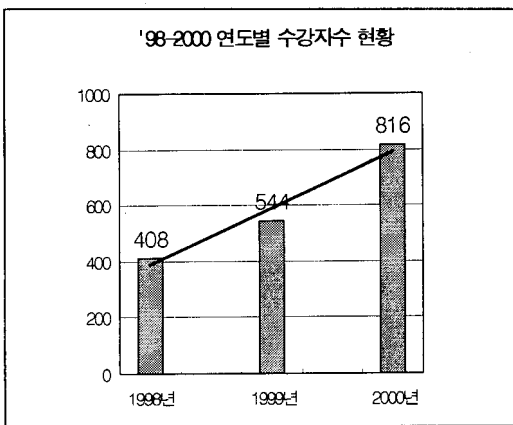
한편, 교육일정의 공고 및 홍보와 관련해서는, 매월 초 도서관 홈페이지의 이용교육 신청란에 일정을 게시함과 아울러, 대학신문과 학내 BBS를 통한 일정 공고 및 홍보를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홍보매체 가운데서도 특히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방학기간을 이용, 학내 전 대학원생 및 교수 앞으로 보낸 E-Mail에 의한 교육홍보였다. 즉,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E-Mail

이라는 매체의 위력과 함께, '방학'이라는 시
기적 적시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평소
빠듯한 일과로 인해 학기중에는 대개 교육 참
가가 어려운 대학원생에게 있어 비교적 시간
적 여유가 있는 방학기간은 그만큼 높은 교육
참가율을 유도할 수 있는 適期임을 실감할 수
있었던 때문이다.

이같은 홍보효과에 힘입어, 1998년 강좌
개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 수강자
수는 매회 평균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 참고로, 각 연도별 수강자수 현황 및 수
강자의 신분별 현황은[그림 1], [그림 2]와 같
다.



(그림 1) 수강자 신분별 현황



(그림 2) 연도별 수강자수 현황

3. 「도서관 정보검색」

가. 「도서관 정보검색」과목 개요

도서관 이용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국내 대학 현황을 보면, 국내 대학 중
서는 1974년 서강대학교가 그 효시로, 이후 이
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감
에 따라 1997년까지 전국의 약 13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경우 대부
분의 대학에서는 정규과목으로 Bibliographic
instruction 수준의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각 전공 주제
별 서지교육 과목이 활발하게 개설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도서관 주도하에 개
설된 정규 교과목으로서의 도서관 이용교육
의 현황은 어떠한가? 이하에서는, 학부생 교
양과목인 「도서관 정보검색」의 전반적 내용
을 살펴본다.

「도서관 정보검색」이 탄생하기까지는, 도
서관 이용교육의 교양과목 개설을 향한 우리
도서관의 그간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1995년
12월 대학 당국에 제출한 「도서관 이용교육의
교양과목 채택 요구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강좌 개설이라는 결실을 맺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1996년도 2학기에 그 탄생을 보게
된 「도서관 정보검색」은 학부생 교양과목의 제
5영역인 「사회와 이념」(Society and Ideas)에
속해 있으며, 교과목 번호 005.045로 지정되
어 있다.

먼저, 본 강의를 담당할 강사 선정의 문제

는 말할 것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거나, 당초 우리 도서관이 대학 당국에 제출한 교양과목 채택 요구안에서도 몇 가지의 방안으로, 1) 본교 도서관 사서 담당, 2) 외부 시간강사 담당, 3) 교내 도서관학 전공 교수 담당, 4) 외부 시간강사와 본교 사서와의 공동 담당과 같은 4 가지의 안이 제안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본 강의의 담당 강사는 상기 4 가지 방안 중 4 번째 案인, 외부 초빙 강사와 우리 도서관 사서와의 공동 담당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강의 내용에 따라,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이론 강의는 외부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실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테마는 우리 도서관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과목의 배당 학점은 2학점에, 강의 시간은 주당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수업방식은 강의 60%, 실습 40%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평가방식은 수시평가(출석 및 수업시간과 실습시간의 질의내용과 성실도 평가) 10%, 중간고사 30%, 학기말 고사 30%, 과제물 30%를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 본 강의의 수강인원을 살펴보면, 과목이 개설된 1996년 2학기부터 2000년 2학기까지의 각 연도 및 학기별 수강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기 표에서 보듯이, 매 학기별 수강자수는 매년 약 100-120 명線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로 2000년 2학기가 종강된 시점에서 집계된 총 수강인원은 1,033 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강좌수에 있어서는 당초 1개 강좌로 개설되었으나, 과밀한 수강 인원으로 인한 교육효과 저하를 개선하고, 더불어 실습실의 한정된 좌석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解法으로 1997년 2학기부터는 2개 강좌로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표 1〉 연도 및 학기별 수강자수 현황

연 도	학기	강 좌 수	수강자수 (학기별)	수강자수 (연도별)
1996년	2학기	1	112명	112명
1997년	1학기	1	134명	253명
	2학기	2	119명	
1998년	1학기	2	85명	204명
	2학기	2	119명	
1999년	1학기	2	119명	242명
	2학기	2	123명	
2000년	1학기	2	126명	222명
	2학기	2	96명	
총 계		총 1,033 명 수강		

(자료출처: 서울대학교 교무처 수업과)

나. 「도서관 정보검색」강의 내용

이어, 본 강좌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까? 먼저,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는 申肅媛, 李淳子 공저의「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으로서, 강의 진행 또한 대개는 본 교재의 내용 구성 순서에 따르고 있거니와,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도서관 정보검색」 강의 내용

강의 내용	도서관 지원부서	배정시간
대학도서관의 조직과 업무 소개: 도서관 Tour	도서관의 각 해당 부서	2시간
도서관 자료조직: DDC를 중심으로		"
청구기호의 의미와 배열/ 자료의 배열		"
도서관 자료검색: SOLARSnet 실습I-II	전산실	4시간
참고업무 및 자료의 구성, 종류		2시간
참고자료: 서지와 색인(일반/주제자료)		"
CD-ROM 자료, 해외 Web DB: 실습	전자정보실	"
논문작성법: 註, 참고문헌의 기입형식		4시간
특수자료 및 특수 서비스 이용법	국제기구 자료실	2시간
미국 의회도서관 Tour: 비디오 상영		"

(* 상기 강의 내용은 2000년도 2학기 강의 계획서에 의함)

상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본 교과목의 지향점이란 다름 아닌 학부생으로 하여금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로 다종다양한 자료와 함께,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제반 서비스와 기능을 보다 친밀하게 몸에 익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매 학기의 강의는 도서관 각 부서의 전반적인 안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리하여, 수강생들은 도서관 각 부서의 담당업무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 내용에 대한 대략적 설명을 듣게 된다.

이어, 순차적인 강의 진행에 따라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우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도서관의 자료가 어떠한 원리로 조직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 정보검색」에서는, 우리 도서관이 채택하고 있는 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분류법과 함께 청구기호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도서관의 목록 및 자료의 배열 원리에 이르기까지, 자료 이용상의 기본적인 개념을 교수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 가운데에서도 특히, 참고자료실에 비치된 각종 참고도서 및 서지자료는 학문 연구에 기반이 되는 기본 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백과사전류를 비롯하여, 일반사전 및 인명·지명사전, 그리고 각종 연감, 명감, 편람류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서지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각종 주제별 서지자료 및 색인, 초록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강의는 이들 주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만이 아니라, 실제 과제물을 통하여 자료의 활용법을 직접 체득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과정이야말로, 학문연구 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연구보고서의 작성에서부터 학위논문 집필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료활용 기술을 익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용 가치는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또한, 논문 집필시 요구되는, 이른바 참고문헌과 각종 註(脚註, 尾註 등)의 기입 형식 및 배열 방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실제 논문 작성에 대비한 실용적인 지식을 교수하고 있으며, 이 또한 과제물을 부과하여 각자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참고문헌 리스트를 직접 작성해 보게 함으로써, 강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다. 「도서관 정보검색」실습 내용

도서관의 해당 실무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

는 실습 테마로는, 도서관 자료검색을 위한 SOLARSnet 실습, CD-ROM 및 해외 Web DB 이용법 실습, 그리고, UN(United Nations) 자료와 HRAF(Human Relations Area Files: 이하, 비교문화 자료)의 이용 방법을 소개하는 특수 자료 및 특수 서비스 이용법 등이 있다.

1) SOLARSnet 실습

전산실에서 참여하고 있는 SOLARSnet 실습은 당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검색 기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실습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다. 그리하여, 수강자는 각종 검색 명령과 검색 항목에 대한 설명을 비롯, 고기능 검색기법, 검색 도움말 및 기타 검색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조회기능,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대 도서관의 소장목록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수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강자의 자료 검색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2) CD-ROM/해외 Web DB 이용법 실습

이어, CD-ROM 및 해외 Web DB 이용법 실습은 전자정보실에서 강의 지원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앞서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 교육」에서 전술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강의 대상이 학부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주로 CD-ROM 및 Web DB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설명에 이어, 주요 Web DB 1-2종에 대한 검색 실습

의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

3) 특수 자료 이용법 실습

국제기구 자료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수 자료 이용법은, 주로 UN 자료와 비교문화자료의 이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과제 제출을 통해, 이들 자료의 실제적인 이용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UN 자료와 관련하여 당관은 1992년 UN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된 이래, UN 발간의 모든 자료를 망라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바, 특히 UN 자료는 자체의 고유한 문서관리 번호 체계(UN Series Symbol System)에 의해 관리 번호가 부여되고 있는 관계로, 특수 자료 이용법 실습에서는 문서관리 번호에 따른 UN 자료의 검색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편, 비교문화 자료는, 1937년 미국 예일 대학교의 Institute of Human Relations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의, 식, 주, 전통, 관습 등)를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 발간한 것이 그 연원으로, 특히 자료 검색 측면에 있어 비교문화 자료는 'Outline of World Cultures(OWC)'와 'Outline of Cultural Materials(OCM)'를 함께 조합하여야만 검색할 수 있는 특수한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비교문화 자료의 검색법 또한 「도서관 정보 검색」실습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라. 수강 소감에 대한 검토

「도서관 정보검색」에서는 매 학기 종강과 함께, 수강자로부터 일종의 feed back으로 수

강 소감을 제출받고 있는 바, 수강자와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담당 교수는 물론, 강의 지원을 맡고 있는 도서관 실무자들 또한 다음 학기 강의 진행을 위한 하나의 거울로 삼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난 2000년도 1학기 수강자들로부터 회수된 총 78건의 수강 소감 가운데 몇 편을 간추려 소개하면서, 본 강좌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편, 수강 소감은 강의의 '좋았던 점', '미흡했던 점',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는 특히 '좋았던 점'과 '미흡했던 점'을 중심으로, 수강 소감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별 분포를 검토함으로써, 수강자가 느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좋았던 점

소감 [패턴 1] : 도서관에 대한 인식변화

① ...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면 이 강좌만큼 실용적이고 '뭔가 남는' 강좌는 없었던 것 같다. ... 지금은 어떤 친구들보다도 도서관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비교문화 자료실'이나 '마이크로 필름실'은 이 강좌가 아니었다면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가보지 못했을 것 같다. 처음의 도서관에 대한 낯설음도 이제는 없다. 오히려 다른 어떤 곳보다 익숙한 느낌이 들기까지 한다. 이제 우리에게 도서관은 마냥 공부하고 책 빌리는 곳이 아닌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다' 처럼 다가온다. 1학년 1학기 때 이 강좌를 듣게 된 것을 정말 행운으로 생각한다.

② 이번 한 학기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입학한 지 6년째에, 그리고 4학년일 때 이러한 강의를 들었다는 데에 무척이나 아쉬웠다. 신입생일 때 혹은 늦어도 2학년 때에 들었다면,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결코 제한적이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자료가 내 손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도서관을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DDC 분류번호가 낯설지 않고,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이 제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제 자리에 꽂아 주기도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사실인 듯 하다. ... 이제 우리는 대학 도서관이 온 세상에 떠다니는 모든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곳이며, 정보에 보다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감 패턴 2] : 자료 및 정보검색에 대한 지식 습득

①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였던 것은, 참고자료실에 있는 소장 도서의 종류와 체제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사전들, 편람류, 특히 여러 방면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서지, 색인, 초록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 해외 DB에 관한 교육은 아마 이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졸업할 때까지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아주 귀중한 배움이었다.

② ... 도서의 검색 방법에서도 많은 걸 알게 되었다. 단순히 도서명으로만 찾았었던 데

에서 주제어, 분류기호, 저자 등으로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이제까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이전엔 알지 못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참고자료와 KERIS, CD-ROM이다.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하는데 참고자료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보다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 KERIS의 존재를 알면서 국내의 대학 도서관을 network을 통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CD-ROM은 세계의 우수한 도서관을 안방에서 검색 가능하게 만들었고, 각 관심 분야에 따라 CD-ROM의 종류도 상당히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 미흡했던 점

[소감 패턴 1] : 강의 시간의 부족

① 우선 강의 시간이 너무 적다. 자료 내용과 종류는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 다 하려니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② 너무 진도를 빠르게 나가서 그 시간에 나가는 내용을 솔직히 그 시간에 이해할 수는 없었다. 숙제를 함으로써 완전하게 학습하긴 했지만, 숙제할 때 많이 헤맨 것 같다. 수업 시간을 늘려서 느긋하게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소감 패턴 2] : 실습 시간의 부족

① 실습 시간이 부족해서 실습 강의가 너무 빨리 진행돼, 실제로 실습을 별로 해 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수업은 실습 시간이 주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다.

② CD-ROM 검색과 외국 데이터베이스 검색 배우는 시간이 너무 짧아, 다 배우기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용하고 다른 곳에선 배울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 전자자료 검색 시간을 더 늘렸으면 합니다.

이상의 수강 소감을 바탕으로 회수된 78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본 강좌의 '좋았던 점'으로는 크게 상기 2 가지 유형 즉, 1) 도서관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2) 자료 및 정보검색에 대한 지식 습득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유형을 계량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즉, 종래 인식하지 못했던 도서관의 기능 및 존재 의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비롯,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로 볼 수 있는 소감이 총 25건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도서관 자료 및 정보검색에 대한 지식 습득을 소기의 성과로 지적하고 있는 수강 소감은 총 62건으로 분류되었다.¹⁾

이 밖에도, 비록 소수 의견이기는 하나, '논문작성법에 대한 이해'를 본 강좌의 좋았던 점으로 꼽고 있는 수강자도 보인다. (총 4건)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도서관 이용교육'의 기대 효과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 및 도서관 사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도서관을 포함한 다종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지식 및 정보검색 기

법의 체득이 「도서관 정보검색」과목에서도 그대로 검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강좌의 '미흡했던 점'으로는 위에서 예시한 바, 1) 강의 시간 부족 및 2) 실습 시간의 부족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강의 시간 부족이 총 7건, 실습 시간 부족은 총 24건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곧 바로 수강 소감 중의 '건의사항'으로 연결되고 있다. 즉, 건의사항 중의 다수를 차지하는 의견은 '실습 시간의 확대'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안으로, 본 강의의 학점수를 3-4학점으로 늘려 줄 것을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면, "3학점이나 4학점 정도로 시간을 늘려, 충분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학점으로 늘리고 한 주에 두 번 나누어 했으면 좋겠다", "1-2학기 1년 강좌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등등의 의견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건의사항 중에는 CUG를 활용한 수업 게시판의 개설과 아울러, 실습 컴퓨터의 upgrade를 요망하는 의견이 다수 보이고 있다.

IV. 문제점 및 발전 방향

1.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당관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의 개요는 전술

1) 이들 데이터의 총계 수치는, 2가지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복수 의견을 각각의 유형으로 다시 재분류한 관계로, 표본 수치를 상회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 바이나, 당관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한계점을 그대로 안은 채, 피상적인 도서관 소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교육내용 및 교재의 미비, 저조한 참가율, 참가자의 관심도 부족 등으로 인한 교육 성과의 비효율성이 그것으로, 그리하여 目下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 당관에서는 2001년 올해 신입생에 대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생략, 본교 學生課 제작 비디오 테이프 내용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도서관 소개로 대체할 예정이다. 더불어, 투자 예산에 비해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를 單枚 leaflet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이용자 교육의 기초단계로 기존의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이 갖는 그 나름의 존재 의의는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러나 앞으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존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도서관내 타 이용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존폐여부 및 그 운영을 둘러싼 획기적인 방향 모색과 함께,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의 혁신을 통한 보다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도서관 이용교육 부문의 숙제로 남아 있다.

2.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담당자로서, 교육 현장에서 필자가 느끼는 점은 한 마디로 교육 여건의 열악함이라 하겠다. 이는 곧, 이용교육 전담직원의 과부족 및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교육 대상이나 전공학문, 그리고 DB검색의 숙련도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용교육 현실을 비롯, 도서관 관계자의 무관심, 이용교육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인지도 부족, 이용교육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 부재 등등으로 대변된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환경에 대응한 최적의 정보봉사 서비스로서,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逆으로 곧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타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도서관 이용교육 부문에 있어 타개해야 할 문제점을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제분야별 이용교육 전담 직원의 확보가 시급히 요청된다. 즉, 전담 직원의 확충을 통해, 수강 대상자별 혹은 전공 학문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숙련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성과를 최대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강구와 아울러, 보다 공격적인 홍보로 이용교육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인지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3) 도서관 관리자층의 관심도 제고와 아울러, 이용교육에 대한 과감한 재정적, 인적 지

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타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의한 교재의 공동 개발 및 공동 활용을 추진함으로써, 교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아울러, 기관간 공동 이익의 추구가 요망된다.

5) 이용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강력히 요청된다.

3. 「도서관 정보검색」

「도서관 정보검색」은 올해로 강좌 개설 5년이라는 초기 시행단계에 있는 과목이니 만큼, 이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정보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참고질의에 답하면서 현장 실무자로서 느끼는 것은, 역시 「도서관 정보검색」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자료 접근방법 내지 검색도구의 활용법에서 현격한 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또한 수강 소감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좀더 이른 신입생 시기에 이러한 강좌를 들을 수 있었다라면 하는 강한 아쉬움과 軌를 같이 한다.

한편, 이같은 점은 수강 소감에서도 「도서관 정보검색」을 학부 신입생의 필수 교양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 강좌를 담당할 교수진이나, 도서관의 시설 및 수용능력 등과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이의 즉각적인 채택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도서관 정보검색」과목이

보다 내실있는 강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학점 및 강좌수의 점차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를 환연하면 강의시간 및 강좌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학부생에게, 그리고 좀더 이상적이라면 보다 많은 신입생에게 「도서관 정보검색」이라는 학문연구에 필요한 기본 Tool의 傳授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끝으로, 附言하자면 본 강좌를 담당할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강좌의 성격이 도서관의 자료 및 제반 서비스의 활용이라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만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도서관 사서로 하여금 담당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 배양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환경 조성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V. 맺는 말

이상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용교육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도서관 이용교육 담당자로서의 필자의 경험으로부터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교육 담당자라는 사명감과 긍지 하나만으로 이용교육을 꾸려 나가기에는 소임의 막중함에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소임의 막중함'이란 단순히 이용교육 교재의 개발과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수 기법에 이르기까지, 이용교육을 둘러싼 끊임없는 방향 모색과 같은 업무적 부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용교육이 미치는 거대한 파급효과를 지적하고자 함이다. 즉, 일차적으로는 정보검색 및 자료 입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은 물론, 나아가서는 도서관 및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까지도 라는 점을 날로 절감하기 때문이다.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 이용자 교육이 이에, 도서관 대내적으로는 관리자층은 물론, 동료 직원들의 이용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요망되는 바이며, 대외적으로는 이용교육에 관한 정보교류의 場으로서 미국의 LOEX²⁾ 프로젝트와 같은 예가 우리의 대학 도서관계에도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끝으로, 한 이용교육 수강자의 수강 소감을 들어 도서관 이용교육이 갖는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어느 수강자는 수강 소감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喝破했던가? 그렇다면, 나는 이 수강자가 체험한 놀라운 발견을 이렇게 풀어 보고 싶다. “도서관, 아는 만큼 쓸 수 있다”라고.

참 고 문 헌

南宣映. 대학도서관 주관의 이용자교육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구 : 경북대학교, 1997. 85 p.
 사공 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6. 355 p.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관이용교육의 교양과목 채택 요구안 (未刊). 서울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995. [17 p.]

申肅媛, 李淳子 공저.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 法. 第4 改正版. 서울 : 西江大學校出版部, 1994. 445 p.

신현상.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P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학기 논고집 제9집 (1999.2) 부산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9. p.79 - 101

蔡明子. 大學圖書館의 利用者 教育 實態에 關한 研究. 啓明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대구 : 계명대학교, 1997. 91 p.

丸本郁子 編. 大學圖書館の利用者教育.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89. 256 p.

National LOEX Library Instruction Conference (25th : 1997 :Charleston, S.C.) Theory and practice : papers and session materials presented at the Twenty - fifth National LOEX Library Instruction Conference held in Charleston, South Carolina, 8 to 10 May 1997. (Library orientation series; no.29). Ann Arbor : Eastern Michigan Univ., 1998. 184 p.

2) 1972년 Eastern Michigan University에 설립된 LOEX(The Library Orientation-Instruction Exchange) 프로젝트는 전국 규모의 이용교육에 관한 정보센터로서, 대학 도서관의 이용교육에 관련한 제반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교환의 場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1971년부터는 하나의 테마 아래 연차 연구대회가 개최되어, 그 연구성과는 시리즈 (Library Orientation Series)로 간행되고 있다.